

# 광주·전남 대졸 비경제활동 20만 돌파

### 경제 참여 대책 불구 청년·고학력자 구직 중단 늘어 양질 일자리 부족 영향...노동시장 활력 저하 우려

올해 2분기 광주·전남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에도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 인구는 12만3천명, 전남은 9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47%

만명 중 26.17%, 전남은 전체 48만명 중 20%를 차지했다. 즉, 광주는 고학력자 4명 중 1명, 전남은 5명 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며 다시 말해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 뜻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구직시장을 떠난 사유로는 육아가 사·연로·심신장애 등 다양했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나 고용 조사에서 '그냥 된다'고 답한 '쉬었음'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최근 전국 비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세에도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세는 뚜렷하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상반기(40만8천명) 처음 40만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 큰 폭(-13만6천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2년째 늘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 3년째 줄고 있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50.1%를 기록, 처음 5%를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일자리에 있던 고학력자일수록 구직을 포기하거나 재교육 등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결국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일자리 mismatch가 심하고 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태호기자·연합뉴스



‘자원순환가게’ 개소 지난 19일 광주 동구 계림1동 개미배움터에서 열린 ‘자원순환가게’ 개소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내빈들이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들어보고 있다. 자원순환가게는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가져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광주동구 제공)



## 광주은행,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

### 수습 마친 34명 정식 실전 현장 배치

광주은행은 21일 “최근 고병일 은행장과 임현철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의 직무연수와 6개월의 수습근무를 마친 34명의 신입행원들은 사령장을 받고 정식 행원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했고 현장에서 금융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진정한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에 성실히 임한 신입행원들을 격려하며 한명 한명에게 휘장을 달아주었다. 더불어 “지역민과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프로 은행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전체 34명 중 30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다. /임재만기자



##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2024 꽃 생활체험교육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지부는 21일 “최근 다원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지역 발달 장애인 21명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2024 꽃 생활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업을 총괄하는 최성희 강사는 “활동했던 원예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 키우거나 작업장 옥상 공동 공간에서 농작물도 키우고 있다”며 “원예 활동은 발달장애인들이 스트레스 감소, 자율신경계 안정을 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배려층의 정서안정·심신치유 등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농림식품부 주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수업은 나비모양의 호접란을 개인 화분에 심고 그 위로 청이끼를 덮어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총괄하는 최성희 강사는 “활동했던 원예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 키우거나 작업장 옥상 공동 공간에서 농작물도 키우고 있다”며 “원예 활동은 발달장애인들이 스트레스 감소, 자율신경계 안정을 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배려층의 정서안정·심신치유 등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에너지 절약 및 청량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지역 레미콘업계 “건설 현장 모래 수급 부족”

### “관계기관 공급망 의무화 등 선제 대응해야”

광주전남 레미콘업계가 건설 현장 골재(모래) 수급 부족에 대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1일 “지역 내 골재 부족으로 높은 운반비를 추가 지불하면서 타지역의 골재를 수급 중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관계기관이 제도적으로 골재 공급망 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2023년 골재 수급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의 경우 지난해 70만㎡ 이상의 골재를 사용했다. 다량의 골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황룡강·영산강 등 지역 내 하상골재원이 있으나 채취 과정에서 환경 파괴, 소음, 먼지 발생 등의 민원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권역(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곡성·영광·함평)은 레미콘 제조용으로 연약 280만㎡의 골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상 골재 채취량 감소로 전

북 등에서 전체 필요량의 49.4%인 140만㎡의 모래를 공급받고 있으나, 운반비 증가로 채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잔골재(모래) 산지 중 관내 공급의 28.9%를 차지한 함평군의 채취량이 80㎡였지만 올해에는 절반 수준인 40㎡로 감소하면서 모래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에도 골재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의 작업이 멈춰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는 “최악의 경우 광주시철도2호선공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등 지역 내 주요 관공사가 울스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고유가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골재 수급 부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관련 업체들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골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슬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NAJU 나주시** 문의 : 062)650-2099